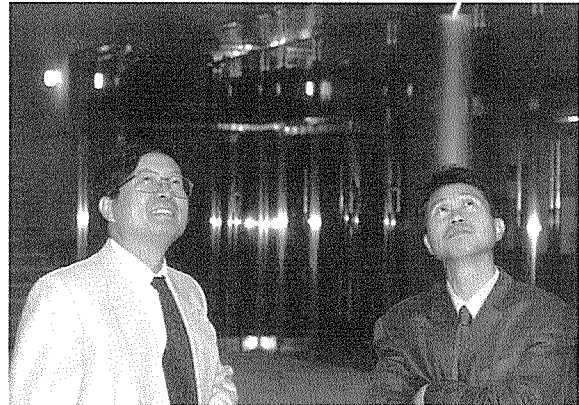


일상성을 통한 소통의 메시지

The Message of Communication Through the Ordinary

설계자 / 최동규(서인건축) 대담자 / 김병윤(백제예술대학 교수)  
 Kim Byung-Youn & Choi Dong-Kyu  
 일 시 / 1997. 5. 9, 장 소 / 성도교회



이미 종교건축, 그것도 개신교 예배당을 많이 설계한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는 건축가 최동규의 사무실인 서인건축을 방문했을 때 이미 소란은 시작된 상황이었다. 그가 오랫동안 설계사무소로 이용했던 터미널 근처의 사무실이 이사를 위해 집을 꾸리고 있던 날이었다.

몇번에 걸쳐 사무소를 이사해본 경험이 있는 터라 겁이 났으며 그 소란과 먼지속에서 정신이 좀 아득해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와 남산자락에 다다랐고 오던 길에 그의 새사무소도 멀리서 보고왔다.

사옥, 성공한 건축가... 무엇인가 견고하고 단단한 각질로 쌓여서 쉽게 나와 같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또 다른 건축하는 이들이 궁금해 할 것들을 그로부터 멋지게 찾아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머리 가득 메웠으며, 그래서 포장된 사고와 형식성, 번지르한 비평적 새김질을 반복하지 않도록 내심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짜여진 편집적 시각을 벗어나 일상의 대화로 그가 설계한 건축물과 그 건축물을 유지하는데 써버린 그 도중의 얘기들, 어떠한 경험이 있기전에 그에게 처연히 다가선 일상의 매체들. 유달리 그에게만 그것이 그렇게 보여져 그를 움직이게 한 그 사고를 들어보기로 하자. 과연 쉽다거나 어색하다거나 또한 그 매체가 엉뚱하다해서 가려질 것은 없다. 그대로 보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가 최동규가 소탈하다거나, 달변가이라거나 현학적이면서 해학성을 건축과 그의 일상에 물씬 풍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일상 그대로 그에게 다가갔다.

김병윤 성도교회는 오랜 연륜을 지닌 교회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이 설계에 수임이 되셨습니까?

최동규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지요. 내년 1998년이 이교회의 50주기가 되는 해로써 자부심이 대단

한 교회입니다. 영락교회에 비해 체구는 작지만 궁지만은 뒤지지 않습니다. 성도교회의 신축은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위원회가 발족되어 준공시기를 맞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설계는 9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물망에 올랐던 국내 굴지의 설계사무소 한군데에서 추천해 주셔서 어려운 시험과정을 거쳐 설계에 위촉되었죠. 그때가 6월 초순이었는데 열심히 안을 발전시켜 그해 12월에 계약이 되었고 당초의 안은 8층으로 계획을 했는데 남산경관 규정에 18m로 높이제한 규정이 있어 아주 참담한 심정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 거의 계약금까지 되돌려 준 상황으로 종료까지 갔었는데 그 이듬해 다시 기회를 얻게 되어 여러 인허가과정을 거쳐 착수후 무려 1년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교인수 1천명 남짓한 교회에서 2천6백여평의 교회를 신축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겠지요. 건축위원회의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병윤 \_\_\_\_\_ 계획대지의 형세와 Context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최동규 \_\_\_\_\_ 보셨겠지만 서울역에서 남대문시장쪽 퇴계로로 들어서면 도로가 자동차로 꽉 메워져 있지만 밤이면 새벽까지 도로변 가득 시장의 상인들과 시장이 확장되어 불야성을 이룹니다. 도로에서는 얼핏 보일 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변은 크고 작은 여러 건물들로 둘러쳐져 있으며 그것들이 만들 도시의 입면 "틀로" 파인 사이로 비워져 있는 부분 이라기 보다는 감싸인 형세라 해야 하겠지요. 도시의 소용돌이 속에 잠긴 배후지의 내밀함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지요. 그 내밀함을 채운 성도교회는 커다란 도시의 벽처럼 또 하나의 배후지를 간직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건축가들이 자상하게 주변을 살피고 실마리를 찾으려 하는데, 많은 시간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게 느껴지며 또한 그것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 제 경우에도 이원칙이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직접적인 경험과 대지가 수행하여야 할 우선적인 요구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적용을 먼저 시도해 봅니다. 우선 몸집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장방형의 대지와 그 대지를 연결짓는 도로로부터, 흡사 꼬리와 같이 생긴 대지의 도입부에서 실현시킬 수행원칙을 먼저 따져 보았을 때 주변의 상황은 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산으로부터의 경관 때문에 높이에 크게 제약을 받는 것이 제일 큰 제한이지요. 대지로 보면 직사각형의 전형적인 평면이 가능하다고 우선 생각되었지만 교회측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부채꼴형태가 부적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고 저도 좋아하는 유형이라서 대지의 상태를 고집하지는 않았지요. 일단 평면적 배열을 해본 후 문제가 없었던 것을 알았고, 부속공간 등은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이형의 형태들이 등장한다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건축주가 최초로 요구한 그러한 본당의 형태를 적용함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병윤** \_\_\_\_\_ 그러한 펼쳐진 공간형태에 특별히 관심이 있으셨던가요. 그리고 크고 작은 예배실들이 한곳에 집중되어 적용된 점에서 어떠한 구성적 해학성을 지니고 계십니까?

**최동규** \_\_\_\_\_ 부채꼴을 펼쳐진 형태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예배당 형태중에서 부채꼴을 좋아하는 편이죠. 이유는 옥외에서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형성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가 반원형이고 그것의 변형이 부채꼴인 셈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3개의 크기만 다른 닭은꼴의 예배실이 있습니다. 강단의 방향이 3개가 다 일치하지요. 닭은꼴의 형태는 옛날 선조들이 쓰던 목가중에 크기는 다르고 형태는 같은 그릇의 조합이 생각나서 이것을 원용해 본 것입니다.

**김병윤** \_\_\_\_\_ 사실 지금까지 대했던 종교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쉽게 설명을 하시고 계신데 대해 새삼 어려운 질문을 유도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교공

간의 특성상 그것이 지닌 본래의 재래적 성분과 현재의 성분, 다시 말해 인습적인 반복으로부터 이탈을 위해 많은 현대의 종교건축들은 저마다 그 고정된 틀로부터 편차를 고려하고 고정이라는 불안감으로부터 탈피하려고 예측하기도, 규명하기도 어려운 감정의 복선을 계속 잠입하여 그로 인한 새로운 불안과 긴장감을 경험하려 하는데, 계획하신 공간이 지닌 특징과 배려가 형식적 측면 이외에 있다면 무엇에 대해서인지 밝혀주시면 합니다.

**최동규** \_\_\_\_\_ 우선 저는 교회건축하면 예배당, 본당공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심지어 그 이외의 공간은 다 부차적으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본당공간이 부채꼴로 자리잡은 후 나머지 공간의 배열은 사실 너무 쉽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를들면 본당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해도, 그러면 소예배실과 식당의 공간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소예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식당은 아무리 넓다해도, 둘 혹은 넷씩 마주앉아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펼쳐져 있는 것에 불과하고, 소예배실은 비록 크기는 식당보다 작다고 해도, 무엇인가 중요한 의식의 주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긴장된 공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다음으로 굳이 특징을 이야기해 본다면 어느 공간이나 최대한 밝게 해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느 공간이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그리고 거꾸로 쉽게 흩어질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배려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윤** \_\_\_\_\_ 우리는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의식적이다라는 Ritual 하다고 하는 표현을 건축을 경험하면서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한 공간성에 대해서나, 위계 질서등을 나타내는 형식의 표현성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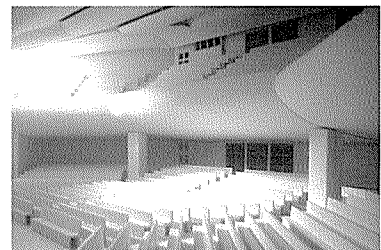
**최동규** \_\_\_\_\_ 저 자신이 제가 설계한 이 공간이 Ritual하냐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신사의 대응전 내부공간은 Ritual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가 계획한 이 예배당 본당공



성도교회



성도교회



성도교회

간내부는 편안함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Ritual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고친다든지, 무엇인가 조심스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예배공간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는군요.

**김병윤** \_\_\_\_\_ 주일이라고 하는 한정된 틀속에서 약속처럼 그무한한 영역과 절대의 형상을 깨닫게 되는 일상을 정지시킨 그 시간, 인간은 가장 절실하고 유일한 방법으로 신과의 교류를 달성시키려 합니다. 성가나 무슬림의 기도소리, 인도와 같은 곳에서 경험하신 생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자리는 늘 신을 염원하는 비워진 자리를 차지합니다. 침묵의 자리, 공간의 허실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동규** \_\_\_\_\_ 상당히 신비함을 가져야 되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김교수가 오히려 성당설계를 해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당은 그런 신과의 만남을 중요시하는, 약간의 신비스러운 공간연출이 필요하겠지만, 개신교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중요하다고 하는 만인사제설등의 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건축화된 공간은 엄숙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언어들은 성당의 예배공간에 적합한 것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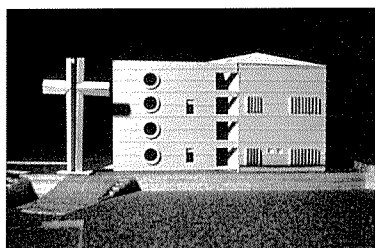
**김병윤** \_\_\_\_\_ 이제 2천6백여평에 달하는 전체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진행해오신 종교건축 작품중에서 이 성도교회에서 특별히 지냈던 관심사가 있다면 무엇이며, 전통적 예배당 형식과 단순배려의 Auditorium적 형식 등의 관점, 그리고 주변환경으로부터 어떠한 모습을 지우려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동규** \_\_\_\_\_ 특별한 관심사가 당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가 부채꼴 형태를 원하길래 수용해 준 것이고, 또 대 중 소예배실도 같은 닳은꼴로 해보려고 했던 것은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아무 선입견없이 건축주와의 대화를 기대하고 거기서, 이야기중에 나오는 실마리를 붙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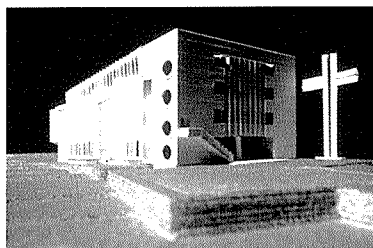
늘어지는 편이지요. 다만 제가 이번교회를 끝으로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은, 개신교 교회에서 음향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교회가 강당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차후로는 이러한 연약한 건축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 파르테논 신전은 다부서지고 최소한의 것만 남아있는데도 그자체의 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지지 않은 최초의 상태를 상상해 보아도 요즘 건축과는 너무나 많이 다를 것입니다. 여기에 전기, 설비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은 건축가들에게, 사실 너무나 많은 기술적 고려사항과, 너무나 많은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옛날 건축물에서 느끼는 건축적 진실함과 거리가 먼 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기 쉽게 다시 비유를 들어보자면 옛날에 성을 지을 때, 내장재와 외장재의 구분이 꼭 있었을까요. 또 단열재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결국 과학문명,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을 너무 위하는 건축을 하다보니, 오히려 건축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주변환경을 특별히 의식한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오브젝트로서 보고 해석을 한 것뿐이지요. 교회 앞마당에서 교회를 조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아쉬운데, 도심내에 짓는 건물들 대부분이 그렇게 많은 기대가 충족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김병윤** \_\_\_\_\_ 복잡한 도시의 한커를 지나 내부로 들어온 느낌을 받고 있고 이미 둘러싸여 있는 주변건물들로 인해 이 장소는 이미 내적인 분위기를 연상받습니다. 주변이 모두 관련있는 부속건물갈기도 하고 Set같은 이미지도 받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던 주변의 찻집조차도 예배당의 부속실과 같은 인상을 연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접근루트에 대해서 그곳에 십자가 종탑을 세우신 의도 등을 얘기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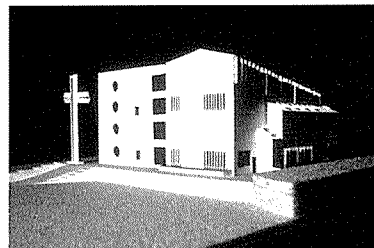
**최동규** \_\_\_\_\_ 아마 주변 찻집조차도 교회의 부속건물갈이 느끼게 된 것은, 이 주변지역이 이미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라 모든 건물이 고급이든, 허름하든 다 제자리에 뽁뽁하게 차있을 뿐더러, 전면에 15층짜리 인송빌딩이 병풍처럼 막고 서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인송빌딩과 교회 앞의 도로도 결코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인송빌딩 옆으로 비스듬히 경사져 있는 도로가 교회로의 유일한 접근로입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쉽게 인지시키려는 의도로 마주



성도교회



성도교회



성도교회

보이는 위치에 십자가를 설치한 것입니다.

김병윤 \_\_\_\_\_ 모든 종교건축이 지닌 속성이 상징과 소통을 의미하는 주제하에 다양한 부제요소를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종탑이라든지, 아치형 개방공간이나 원형의 창틀, 뾰족한 지붕 등, 형식성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전연 과도 같은 표현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성향이 몇 군데에서 보입니다. 그러나 매우 금욕적인 태도의 골격이 종래에 보여줬던 종교건축의 형식에서 많이 달라져 있음도 보게 됩니다. 이 두가지의 겹침이 있는 형태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_\_\_\_\_ 금욕적인 태도의 골격이라는 말을 들으니 언뜻 정면의 입면이 생각납니다. 정면의 입면은 이중의 골격이 보이는데 정면에 있는 것이 겹질, 즉 외피를, 가운데 약간 들어가 있는 듯이 보이는 부분이 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정말 우연히 생각해낸 것인데, 신자들의 매일 매일의 생활이 지난날의 구태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과도 우연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부분의 표현이 금욕적이라고 느껴진 것은 아닐까요.

김병윤 \_\_\_\_\_ 이미 잘 알려져 있는대로 설계자의 건축적 성향에서 알바알토와 같은 건축적 성격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교건축의 풍부한 유산과 의미를 수용하고 있으면서 또한 공간구조를 현대적인 어휘로 구사하는 몇 안되는 교회건축의 거장중에서 알토의 성향은 어떤 것이며, 그로부터 고무되고 있는 개인사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특별히 본인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대상작품이 있으십니까?

최동규 \_\_\_\_\_ 알토의 건축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책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80년대초에 그에게 경도되어 있을 당시에는 그가 구사하는 어휘 하나하나가 제게 다가왔지만, 이제는 그가 했던 작품들 전체에서 일관되게 느껴지는 정신이 크게 느껴지는 편이지요. 즉 그는 인간을 철저히 배려하는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인데, 이를테면 그는 자기건축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편에서 철저히 모든 것을 결정, 선택하는 건축가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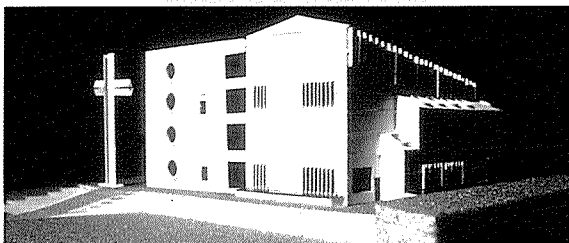
점은 저에게도 아주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윤 \_\_\_\_\_ 아마 부정도 긍정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단 건축이 아니라도 누구의 무엇을 닮았다든가 무엇과 비슷하다던가라는 말을 듣게 되면 대개 기분이 언짢기 마련입니다. 그 보다는 그곳 복유립에 많은 건축 기행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영감을 얻은 부분이 있으신지요. 기억나시는 것 중에서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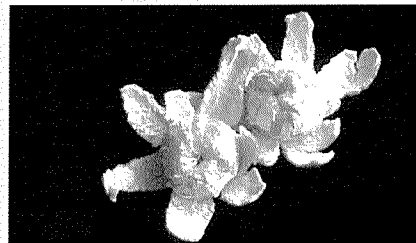
최동규 \_\_\_\_\_ 복유립이라기 보다는, 핀란드, 그리고 그중에서도 알토의 작품들 하나하나가 제게 교훈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로인데 제가 한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빛의 처리로 제가 설계한 건축공간에서는 최대한 자연광을 유입시켜 밝게 하려는 것입니다. 빛의 처리방법을 그로부터 배운 것이죠. 특히 모든 건물에서 제일 주인공이 되는 공간이 있기 마련인데, 그 공간에서 빛의 연출은 필수입니다.

김병윤 \_\_\_\_\_ 우리는 알토와 같은 건축가의 교회당 루이칸의 교회와 그의 건축, 코르뷰제의 라뮐렛 수도원, 바라간의 수녀원교회 등 크게 몇 개의 걸작을 남긴 건축가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역사속에서 유지되어 오던 종교건축, 특히 예배당 건축의 현시적 재해석을 보게 된다. 과거의 상징에 크게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직접적 기능체계에 눈이 멀지 않은 이들은 유난히 이 두 개의 시대적 상황을 잘 겹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건축의 가능성을 보임과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보편적 체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세의 건축가라면 모두 이들의 건축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이후의 건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까?

최동규 \_\_\_\_\_ 지금 몇가지 열거한 교회를 상상해보니, 제가 이번 성도교회에서 아룩하지 못한 몇부분들이 금방 대비되어 느껴집니다. 특히 성도교회에서는 건축주의 요구에 대한 배려를 철저히 해보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하다보니, 사실 교회건물 전체에서 느껴지는 인상은 비싼 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열거한 걸작들은, 검소하고 질박한 표현이 바탕에 깔려있고, 솔직 순수성이 느껴집니다. 즉 다음번 교회건



성도교회



교회 정면에 직접 관련된 이미지로서 겹질과 속의 관계를 나타낸다

축에서는 덧붙임이 없는 질박한 표현으로 종교건물이 가져야 할 속성에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강당과 같이 보이는 과다한 표현을 배제해 보고 싶습니다.

김병운 \_\_\_\_\_ 다시 얘기를 성도교회의 대지에 대해서 좀더 할까요. 주된 접근로부터 대지가 면한 부분은 경사로로 오르는 주진입로와 아주 상징화된 접근로가 있는데 이곳에 흐르게 될 물은 경관에 의미를 두신 것인지 십자가로 다 다른 동안에 씻기를 위해 만든 행위의 상징인지?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도로 향하는 예수의 종교적 실체를 이미지화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최동규 \_\_\_\_\_ 우선 십자가가 놓여있는 위치는 인송빌딩사이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길로부터 접근하는 신자들 눈에 띄이기 쉬운 위치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것은 종탑이 아니고 십자가 그 자체가 다시 디포드(Deformed)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사이에 약간의 좁은 통로가 있고 양편에 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데, 십자가 사이의 통로로도 다닐 수 있게 한 것은 색다른 경험을 유도해 보려고 한 것이죠. 또 양편에 흐르는 물은, 사실은 여름더울 때 시원한 분위기를 유도해 보려고 한 목적도 있고, 또 성경에 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비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부분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상상을 하게끔 맡겨버린 것입니다.

김병운 \_\_\_\_\_ 이는 마치 성화의 한 부분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한 이미지화한 공간들이 주는 신비감이나 가시적인 또한 체험으로써의 상징을 통하여 성스러워지는 소통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종교적 실체에 대한 규명, 소란한 세상으로부터 짧은시간내에 변화를 구해야하는 강렬한 전환을 시도하신 것이라면 십자가탑을 관류한 이후 진입마당의 분위기는 다소 특징을 지니는 성격면에서 떨어지는데 그러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최동규 \_\_\_\_\_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당의 소홀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마당으로 들어오고 그 마당의 대향부를 받쳐주는 무엇이 있었다면, 그 마당이

좀더 종교적인 성스러움이 있었을텐데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김병운 \_\_\_\_\_ 아쨌든 이 도입부분의 가시적인 이미지와 상징성은 특별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연한 성스러움의 단서가 되는 주요요소들에 좀 부차적인 요소들, 예를들면 스텐레스 금속의 띠들이랄지 입면을 구성하고 있는 개구부의 주요 형태들과 전면부의 금속판들, 사실 다른 건축가의 경우의 교회건축에서 잘 뒤여지지 않은 기술성을 보인다든지, 상업적 건축에서 감성적으로 훈련된 요소들을 적용하여, 그 부잡스럽고 돈들인 천덕스러움이 새로운 건축의 처환을 예견하듯 오인된 모습에서 마음이 걸렸는데, 이는 매우 조심해야할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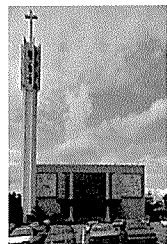
김병운 \_\_\_\_\_ 매우 치밀한 사고와 자세한 세부설계가 이루어진 내부공간은 집회장소로서 손색이 없는 훌륭한 공간성을 보여줍니다. 단 성스러운 공간의 실마리를 얻게 되는 전래의 예배공간의 특성과 현재적 의미, 또한 이후의 설계자의 새로운 건축공간과 그 방법성을 극복하는 시도와 관련된 얘기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최동규 \_\_\_\_\_ 그말을 들으니 설계하던 당시가 생각나는데, 종탑을 설계할 당시는 이미 설계가 너무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져 사실 빨리 끝내고 싶은 심정이 들 때였고, 종탑중간의 스텐레스띠는 그냥 심심해서 변화를 주려 했던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없는 것이 나을뻔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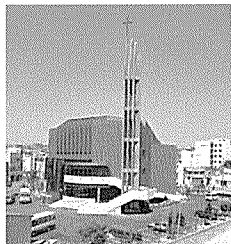
다음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이 비슷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소망교회, 대흥침례교회 등의 교회의 모양에 대해서는 창고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알토자신이 극히 내부지향적인 건축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을 저도 자연스럽게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알토의 후기작품들로 가면 특히 흰란디아 홀이나 세넷살로 타운홀 등 외관과 내부 공히 나무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더 솔직하고 단순한, 그리고 빛의 연출만이 느껴지는 그러한 교회건축을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대전 대흥 침례교회



소망교회



속초 중앙교회



군산 성광교회